

# 17세기 중반 조선의 日光東照宮 인식

-조선후기 외교사료를 중심으로-

장혜진\*

---

## 目次

---

서론

1. 17세기 근세 일본과 日光東照宮
2. 조선통신사의 日光 방문
3. 조선의 日光東照宮 인식
  - 1) 『해행총재』에 기록된 日光
  - 2) 조선의 외교사료에 기록된 日光
    - 2-1) 1643년에 관한 기록
    - 2-2) 1655년에 관한 기록

결론

---

## 서론

17세기 중반 일본 막부는 將軍을 주축으로 한 강력한 권력 체제를 구축하게 된다. 家康에 의해 실질적인 권력 즉, 군사지휘권과 서위 임관권이 將軍에게 장악되고 각 大名의 통제와 사회 제반의 통제책이 정비되었다. 家康의 통제책을 시작으로 2, 3대 徳川 將軍의 시기에 이르기까지 막부는 안정적인 체제로 확립되어 갔다. 이에 천황이 존재하고 있으나 천황을 능가하는 권위를 將軍이

---

\* 한양대학교 일본언어문화학과 박사과정

획득하는 기반을 다지게 되었다.

어떤 사회의 지배 체제 성립에 있어서는 제도적인 장치도 필요로 하지만 더불어 정신적인 장치도 필요로 하기 마련이다. 에도 막부의 막강한 將軍 지배 체제 역시 정치, 사회적 변용에 편승하여 여러 제도 마련에 힘썼으나 이를 뒷받침하고 힘을 실어줄 정신적 장치도 필요하였다. 이러한 정신적 장치로서의 家康의 죽음과 신격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중심에 日光과 日光東照宮이 자리잡고 있다. 家康의 유언에 따라 家康의 신격화 중심지가 된 日光은 종교적인 성격은 물론이거니와 정치적 성격을 지닌 곳이기도 하다. 이러한 성지화된 日光에 조선통신사가 막부의 일방적인 요청에도 불구하고 응하여 방문하고 또 대대적인 의례를 행했다는 것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로 보기에 는 무리가 있다. 에도 막부의 확립이라는 중요한 시기에 대외관계에 이 日光東照宮의 최초 등장은 당시 막부 측의 효용가치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국가 간의 외교관 서로의 협의에 의해 성립되는 것이 기본이다. 아무리 일본의 요청이 있었다 해도 무리한 요구라면 조선측에서 거절하면 그뿐인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조선통신사의 日光행을 검토하고, 당시 조선의 외교사료 기록을 통하여 조선의 日光과 日光東照宮에 대한 인식을 고찰함으로써 조선통신사의 日光행의 의의를 밝히는데 일조하고자 한다.

## 1. 17세기 근세 일본과 日光東照宮

日光은 고대 일본에 있어서 종교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 곳이었다. 奈良 말기부터 산악신앙의 중심지였던 日光은 신불습합의 천대종이 확산되고, 鎌倉 시대에는 무가의 종교지로서 발전하였다. 일시적으로 秀吉의 탄압에 의해 몰락하고 폐쇄되기도 하지만 에도 막부시기에 이르러 다시 家康에 의해 새롭게 부흥하였다. 그 중심에 家康의 신격화와 日光東照宮의 조영이 기획되고 日光은 종교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깊은 관계를 맺었다.

家康은 죽기 전에 자신의 신격화를 통하여 將軍의 권위 확립을 기도하였다.

天海를 불러들여, 법화 지관의 깊은 뜻인 山王神道の 심오함을 전하여, ‘現世安穩, 後生善廻’의 본의를 이루겠다고 天海는 감사히 뜻을 받들었다. 이리하여 장례는 ‘먼저 당국 久能社에서 치르고, 한 번의 세월을 보내고 그때에 신호를 천황께 아뢰어 받아야 하는 일에 있어서는 대직관의 예를 들어 日光산으로 옮겨야 한다. 그리하면 신을 當嶺에 내리게 하여 영원토록 국가를 옹호하

고 자손을 시행하는 일이 틀림없어야'하는 것을 맹약하여 겐나 2년 4월17일, 75세로 안온히 서거하셨다.<sup>1)</sup>

이 유언에서 家康은 天海를 불러 천태종으로의 귀의 의사와 장례에 대한 유지, 적합한 家康의 신호 결정에 대해 그 뜻을 전하고, 신이 되어서는 국가 鎮護의 의지를 밝히고 있다.

家康의 사후, 日光東照宮의 조영을 시작으로 신격화가 진행되었고, 신호결정의 논쟁으로 이어졌다. 家康의 신호명은 2대 將軍 秀忠시기에 결정되었다. 家康의 신호는 '東照大權現'으로서 말 그대로 동쪽을 비추는 權現이라는 뜻이다. 이는 伊勢신궁에 모셔져 있는 天照大神의 '天照'인 神名이기도 하며 '東照'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關西의 황실을 고려하여 지역적으로 關東지역에 한정하고 있으나 근처에는 일본 전역을 제압하고자 하는 위광이 널리 미치도록 한다는 의도를 드러내<sup>2)</sup>는 것이기도 하다.

日光東照宮의 조영은 『東照宮史』에 잘 기록되어 있다. 여기에는 3기<sup>3)</sup>에 나눠 조영과 증축, 수선의 시기를 나누고 있다. 오늘날의 화려한 日光東照宮의 모습으로 개축하여 형성된 것은 3대 將軍 家光시기였다. 東照大權現으로서의 권위와 숭경에 대한 기획이 구체화되어 절정을 이룬 시기라 할 수 있으며, 이때에 天海를 중심으로 제작된 『東照宮緣起』로 인해 하나의 왕권신화가 창출되었다. 이 기록물은 日光東照宮에 봉납되었다. 家康의 신격화에 정치의 정통성과 타당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그 무엇보다도 강력한 신화적 종교의 창출이 필요했던 것이다. 즉 家康의 유언을 받들려는 家光의 家康 신격화 의지가 강하게 작용하여 日光東照宮은 막부의 종교와 정치적 체제의 정신적 기반을 마련하고 다지는데 그 가치가 있었다.

이처럼 家康 신격화 사업은 家康 본인은 물론 2, 3대 將軍의 의지가 없었다면 이뤄낼 수 없었던 것이었다. 3대 將軍시기에 걸쳐 日光東照宮은 家康의 신성화된 권위, 또한 현 將軍의 권위에 맞춰 그 위용을 과시하는데 부족함이 없이 개축과 수선의 과정이 반복되었다.

1) 小松茂美 編 『東照宮緣起』中央公論社, 1994, P.200

2) 菅原信海 「南光坊天海大僧正と家康公」 『日光山輪王寺』4, 1956, p.12

3) 여기에는 1기는 元和기 창건과 이후의 증축, 수선의 시기, 2기는 寬永기의 개축과 이후의 증축, 수선의 시기, 3기는 元祿기의 修營과 이후의 수선의 시기로 분류되어 있다.

東照宮事務所 『東照宮史』1927, p.43

## 2. 조선통신사의 日光 방문

조선통신사는 1636년, 43년, 55년 세 차례에 걸쳐 日光을 방문하였다. 1636년 이미 來日한 통신사는 양국간의 사전협의로 없이 일본측으로부터 갑작스런 日光행의 요청을 받았다. 이에 통신사는 어쩔 수 없이 日光 유람을 허락하였으나 이는 전례가 되어, 이후 두 차례의 日光행이 실현되고 日光東照宮에서 의례가 수반되었다.

다음은 조선통신사의 日光행 일정을 정리한 표로써 통신사가 에도에 입성하여 국서봉정식 이후의 日光행에 걸린 시일이나 인원을 확인할 수 있다.

<통신사의 日光행 일정표>

사절파견	날짜	日光행 인원	조선사신 (정사, 부사, 종사관 順)	일본측 담당자	일정 내용
4차 조선통신사 (1636년)	12월 7일	217명	임광 김세렴 황감	宗義成	에도 도착
	10일				日光행 요청 받음
	13일				에도성에서의 국서봉정식
	17일				日光산으로 출발
	22일				日光산 유람
	24일				에도로 귀환
5차 조선통신사 (1643년)	7월 8일	?명	윤순지 조경 신유	宗義成	에도 도착
	14일				日光행차 예정날짜 통보 받음
	18일				에도성에서의 국서봉정식
	22일				日光산으로 출발
	26일				日光산 의례
	29일				에도로 귀환
6차 조선통신사 (1655년)	10월 2일	322명	조형 유창 남용익	宗義成	에도 도착
	8일				에도성에서의 국서봉정식
	11일				日光행차 예정날짜 통보 받음
	14일				日光산으로 출발
	18일				日光산 의례
	22일				에도로 귀환

조선통신사의 총 담당자는 대마도주인 宗義成이었다. 에도에 도착한 통신사는 이 宗義成을 통하여 에도성에서의 국서봉정식 날짜를 통보를 받고, 이후의 日光행 날짜도 통보 받았다. 將軍 알현과 日光행은 순차적으로 진행되었고, 일본의 준비 상황에 따라 통신사가 그대로 따르는 상황이었다.

통신사는 日光행에 있어 마상재, 악사, 요리사 등의 인원이 포함된 대규모 인원을 동행하였으나 이들을 위한 숙식과 제반의 것들은 모두 막부의 막대한 자금으로 마련되었다.

대군께서는 사신의 유람을 허락받아 일국의 광영으로 삼고자 하시어, 도로를 닦고 숙소를 수선하는 데 든 경비 또한 수만이 들었습니다.<sup>4)</sup>

길을 닦는 것은 西路에 비하여 더욱 근신하여 진흙이 있는 곳에는 모두 가는 모래를 덮었으며, 관광하는 사람이 모두 부복하여 엄숙하고 공경히 하였다.<sup>5)</sup>

여기서 西路는 關西의 길로 통신사의 에도까지의 여로를 말하는 것이다. 일본 측은 지금까지의 길에 비해 日光행에 더욱 정성을 기울이고 있고, 엄숙하고 잘 통제된 모습으로 통신사를 맞이하고 있다. 將軍은 에도에서 직접 파견한 관리뿐만 아니라 많은 지방의 지공관을 준비하여 통신사의 日光행을 극진히 대접하고 수행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였다. 즉 에도에서 日光까지의 노정을 將軍이 직접 주관했던 것이다. 그러나 將軍은 조선통신사의 日光행에 직접 따라 나서는 않았다. 대신 將軍은 日光東照宮 의례에 막부의 가신들을 파견하도록 했는데 그 인원은 백 여명이 넘는 대규모 인원으로 동원하여 참여하게 하였다.

이렇게 조선통신사 수 백의 일행과 일본 측은 백 여명이 넘는 인원이 日光東照宮에 마주하여 함께 의례를 행하였다. 즉 조선통신사의 日光행의 실현을 통해 양국간의 대규모의 외교적 이벤트가 마련되었으며 日光東照宮은 이러한 외교적 이벤트의 장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는데 부족함이 없었다.

### 3. 조선의 日光東照宮 인식

#### 1) 『해행총재』에 기록된 日光

4) 임광 「병자일본일기」 『국역 해행총재3』 민족문화추진회, 1982, p.356

5) 남용익 「부상록 하」 『국역 해행총재5』 민족문화추진회, 1982, p.546

『해행총재』는 조선후기 일본으로 파견된 조선통신사의 삼사가 남긴 기록물로 당시 조선과 일본의 관계를 살펴보는 데 중요한 사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1636년 첫 日光의 유람이 결정되었을 때 통신사는 상당한 거부반응을 느끼고 있었다. 통신사는 日光산의 풍경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鍍金해서 빛을 윤택하게 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또 窓戶와 欄檻은 다 금, 은으로 장식했고, 廉箔과 帷帳은 구슬로 꾸미지 않은 것이 없었으니, 가지 가지 사치를 극도로 해 놓은 형상은 다 기록할 수 없다. 또 幣莊이 있는데, 厖馬의 類를 마치 生時처럼 만들어 놓은 것이 하나뿐이 아니었다. 하늘은 반드시 더러운 것을 싫어하는데, 처사가 이와 같으니 어찌 오래 갈 수 있겠는가.<sup>6)</sup>

이 산(日光산)은 대체로 우리 나라의 伽倻山과 모양은 방불하나 泉石은 별로 보잘 것이 없었다. 국내에서 제 1이라는 명산도 이와 같으니 기타는 짐작할 수 있다. 倭俗에서 불을 숭상함은 고금이 같다. 관백은 일군의 君長으로서 그의 조부를 절 뒤에 있는 荒山 가운데 모시고도 조금이나마 부끄럽게 여기기는 커녕, 도리어 이웃 나라의 세 사신에게 자랑하려 하니, 그의 어리석고 무식함에는 나무랄 수조차 없는 것들이 있었다.<sup>7)</sup>

이처럼 통신사는 日光산에 있는 소위 權現의 영혼을 모셨다는 곳에 이르러 그 형세를 보고, 마구간 하나를 보더라도 그 일본의 극도의 사치함을 날카롭게 비난하고 있다. 또한 보잘것 없고 황량한 日光산에 조부의 家康의 묘당을 세운 것은 불효라 비판하며 그 자랑함을 이해할 수 없다 여기고 있다. 당시 일본의 일방적이고 갑작스런 요청에 의해 日光산으로의 부당한 유람을 하게 된 조선의 세 사신들은 이미 日光산 유람에 대한 거부감과 불편한 심정이 결부되어 日光산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 기록에 있어서도 통신사의 日光산에 대한 부정적인 강한 이미지가 잘 드러나 있다.

그러나 1643, 1655년의 日光산에 대한 이미지는 정반대로 묘사되고 표현되어 있다. 그 중, 남용익의 「부상록」에는 日光과 東照宮에 관한 기록이 남아 있는데, 통신사의 日光 의례를 위한 제문과 일본으로 보내는 서계에서 日光에 대한 인식을 엿볼 수 있다.

조선국왕 성 휘는 삼가 신하 통정대부 조형 등을 보내어 일본국 대유원의

6) 임광 「병자일본일기」 『국역 해행총재3』 민족문화추진회, 1982, p.369

7) 위와 동일, pp.369~370

영에게 제사드리나이다. 영신께서는 공덕을 크게 드러내었네. 큰 자리를 이어 지켜 선대의 법도를 잘 준수하였네. 자손으로서 능히 창성하여 효도의 생각이 더욱 돈독하였네. 우뚝한 저 깨끗한 신사는 실로 명복을 비는 곳이로다. 높은 산에 금색 푸른색의 단청이 찬란하네. 영이 보우하사 왕업이 더욱 빛나리. 우리나라는 대대로 친목을 하여 왔네.(이하 생략)<sup>8)</sup>

귀 대군이 선대의 공덕을 빛나게 이었다는 것을 듣고 우리 왕 전하께서 전일의 우호를 계속하기를 생각하여 사신을 보내어 예물을 받들고 달려가 축하하며, 겸하여 어필, 향, 축, 등롱, 악기를 가지고 가서 대유원 묘당과 대권현 묘당에 제사를 드리니, 그것은 귀 대군의 봉선하는 정성을 드러내는 바입니다.(이하 생략)<sup>9)</sup>

우리 조정에서는 귀대군이 새로 큰 자리를 이어받았다는 것을 듣고 사신을 보내어 축하하며 겸하여 어필, 향, 축, 등롱, 악기를 가지고 가서 대유원 묘당에 제사를 드리고 아울러 대권현 묘당에 분향하니, 그것은 귀대군의 봉선하는 효성을 드러내는 바입니다. 원하건대, 태수는 조정에서 친목하려는 뜻을 받들어 사신을 보호해 왕복하여 고맙게 하여 주십시오.(이하 생략)<sup>10)</sup>

이 기록들을 요약하면, 日光東照宮 의례에 쓰인 제문과 의례 후 일본 측에 보내는 조선의 서계에서, 조선은 大權現이나 大猷院에서의 의례를 선조에게 드리는 후손의 지극한 효성의 뜻을 두어 칭송하고 고인의 명복을 기리는 데 그 의의를 두고 있으며 양국의 친목을 다지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당시 조선 사신들의 日光산에 관한 시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 시들의 내용을 살펴 보아도, 자연을 음미하고, 불교의 정토세계로서 家康의 죽음을 추도하고, 후대의 將軍의 효성에 칭송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구리로 부은 원앙기와 미끈도 한데,  
 황금 난새, 봉새가 산머리에 솟아 있네.  
 영롱한 높은 기둥은 하늘을 찌르는 闕.  
 기나긴 가파른 난간은 은하수에 닿을 듯한 다락.  
 과부가 침하를 걸으면 두 다리를 걱정할 듯,  
 이루가 방에 들면 두 눈이 아찔할 듯.  
 장군이 황황한 대업을 널리 심으려,  
 諸天이 행 트인 곳에 이 절을 열었구나.<sup>11)</sup>

8) 大猷院 제문. 남용익 「부상록 상」 『국역 해행총제5』 민족문화추진회, 1982, p.329

9) 여러 집정에게 보내는 서계. 위와 동일, p.330

10) 대마도주에게 보내는 서계. 위와 동일, p.331

11) 日光산에 씌. 여기서 과부란 신의 이름으로 해그림자를 좇아갈 만한 빠른 걸음을 가졌다고 함. 이 루란 눈이 밝았던 사람을 말하며, 장군은 家康를 지칭하는 것이다.

靑丘의 絳節이 공중에서 내려와,  
 손으로 선향을 태워 梵宮에 예했네.  
 앞 위에 어필 여덟 자가 빛나고,  
 할아버지와 손자의 신령스런 사당이 한 산중에 웅장하네.  
 하늘 서리가 가까이 쌓였으며 가을빛이 희고,  
 바다 해가 높이 솟으며 새벽에 일찍 붉네.  
 衲衣 입은 노승이 맑기가 학과 같으니,  
 좋은 소리를 역관을 빌어 통해 보네.<sup>12)</sup>

이 두 시에서는 구체적으로 家康과 家光를 언급하고 있다. 家康의 위업을 기리고 손자인 家光의 효성을 칭송하고 있으며, 日光산의 절경이 더욱 이들을 신선인양 착각하도록 만들 수 있을 만큼 빼어남에 감탄하고 있다. 당시 조선의 사신에게 있어 日光은 家康의 이미지와 日光산의 자연적 경관의 이미지가 서로 부합하여 겹쳐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1643, 1655년에 파견된 통신사는 1636년 때와는 달리 오히려 日光산에 대해 강한 긍정의 인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통신사의 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일본이 통신사에게 보여지기를 원하는 日光산의 긍정적인 이미지가 조선의 사신에게 그대로 흡수된 듯한 인상을 남기고 있다.

## 2) 조선의 외교 사료에 기록된 日光

### 2-1) 1643년에 관한 기록

조선시대 외교 사료에서 日光에 관해 상세한 정보를 얻기란 어렵다. 기록자의 취향과 편찬집의 성격에 따라 그 내용은 다를 수 있지만, 역시 日光에 대한 객관적 역사적 사실 기술이나 日光에 대한 탐색 정보 등의 기술은 눈에 띄지 않는다. 일본에 의해 요청된 日光 의례가 국가 간의 의례로서 대규모로 행하여졌지만 日光에서의 의례를 위한 양국 간의 준비 과정의 서술이 주류이다. 이것으로 보아 조선은 日光뿐만 아니라 日光東照宮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활동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우선 1636년 조선통신사의 첫 日光행에 대한 기록은 『해행총재』에 수록된 「병자일본일기」를 통해 파악할 수 있으나, 다른 사료에서는 이에 대한 언급

조경 「동사록」 『국역 해행총재5』 민족문화추진회, 1982. p.84

12) 樞現堂에 예를 행한 뒤에 당 가운데 감추어져 있는 白洲 제현의 시에 차운함. 이 당시 일본의 칭에 의하여 어필 여덟 자와 여러 신하의 시를 주었음.

남용익 「부상록 하」 『국역 해행총재5』 민족문화추진회, 1982. p.553



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추측컨대 조정의 문책을 당할 수도 있는 사안이기에 당시의 삼사가 잠시 유람을 갔다 온 것이라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을 지도 모른다. 다만 일본이 다음 통신사행에 미리 日光행을 요청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아 첫 日光행에 대한 보고는 분명 상달되었던 것임에는 틀림없다.

이후의 1643년 통신사의 日光행에 관한 기록은 비교적 쉽게 찾을 수 있다.

『조선왕조실록』 인조 편에는

상이 비국 당상을 인견하고 문기를, 왜차가 온 것은 특별한 의도는 없겠는가 하니 영의정 이성구가 아뢰기를 왜인은 교활하여 그 속사정을 헤아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가 청한 것은 오로지 일광산 사당의 일로서 모두 따라주기가 어려운 일은 아니며 (하략)(인조20년2월23일)<sup>13)</sup>

순지가 아뢰기를, 일광산에 치제하는 절목은 이미 의주가 있으니 비록 임시하여 가감하는 일이 있더라도 이는 편리한 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秀忠의 원당은 거기에 보낼 예가 없기는 합니다마는 저들이 만약 가서 보자고 굳이 청하면 어떻게 하여야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는 이미 확정된 일이지만 저들이 기어코 가서 관광할 것을 원한다면 한번 가서 보더라도 의리에 해로울 것이 뭐가 있겠는가 하고, 상이 또 이르기를 이번의 일은 비록 크게 서로의 관계를 악화시킬 것은 없더라도 우리가 받은 모욕이 사실 너무 많으니, 응답하는 사이에 심분 잘 하도록 하라. (인조21년 2월20일)<sup>14)</sup>

통신사의 日光행은 將軍의 선조인 묘당을 찾아가는 것으로 단순한 외교 사절의 묘당 답사와 관광으로 여기고 있다. 여기서 조선은 양국 간의 관계가 평화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는데 초점을 두고 있을 뿐이다.

『변례집요』에서는 1642년 9월 「御筆 및 詩文을 하사받아 관백에게 바쳤음을 回報하기 위해 서계를 지참하고 나왔으므로(이하 생략)」<sup>15)</sup>이라는 기술을 토대로 일본에서 동래에 차왜를 보내어 日光 사당에 쓸 편액과 종 등이 잘 도착했다는 회답의 서한을 보내왔다는 내용을 간단히 확인할 수 있다.

반면 『비변사등록』에서는 날짜 별로 제법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주로 일본에 보낼 물품 준비에 관한 내용이다.

13) 국사편찬위원회 「인조실록 43권」 『조선왕조실록』 35권, 탐구당, 1981, p.129

14) 국사편찬위원회 「인조실록 44권」 『조선왕조실록』 35권, 탐구당, 1981, p.150

15) 예조전객사 엮음 『국역 변례집요1』 민족문화추진회, 2000, pp.18~19

인조 20년

2월17일 편액 문제를 상의, 누가 편액에 참여해야 하는지 학자들의 천거

2월19일에는 비변사가 ‘日光산의 시운을 지을 사람의 명단’을 전고

2월23일에는 어필을 꼭 받고 싶다는 차왜의 요청에 어필의 8글자(日光淨界彰孝道場)를 정하는 논의

2월 25일 어필을 쓸 소재의 종류와 형식 논의

2월 26일 日光의 詩軸의 형식 논의<sup>16)</sup>

2월23일 기록에는 「저들이 바라는 것은 日光산의 풍경과 사당을 지은 효성을 칭찬하는 말인데,(하략)」<sup>17)</sup>라며 일본이 원하는 바를 자연과 효심의 칭찬에서 비롯된 것이라 이해하고 있다. 또한 7월5일과 6일<sup>18)</sup>에 걸쳐 종 주조, 완성과 종명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기록되어 있다. 「家康의 공덕을 称述하는 일에 있어서는 모름지기 간략하면서도 자상하고 신중하게 말을 꾸며야 할 것 같으니(이하 생략)」라 하여 조선의 숙적 秀忠를 섬멸한 家康에 대한 和好의 뜻을 기리고자 신중하게 처리하고 있다. 7월13일에는 日光산에 범종 주조에 있어 일본이 그 재료를 보내준다는 데에, 일본의 쇠로 만들어 보내면 체면이 서지 않으니 「저들 나라에서 연례적으로 보내는 철물을 썬하여 덜어내어 종을 만드는 자재의 가격을 치르게」<sup>19)</sup>하라는 기술이 쓰여 있다. 조선은 일본에 종을 보내는데 있어 요청에만 응할 뿐 그 이상의 배려를 해 줄 필요가 없으며 손해를 보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인다. 또한 일본에 있어서 조선은 항상 체면을 염두하고 있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통문관지』에서는 일본 측이 日光행 요청의 이유를 단편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大君의 나이가 장차 마흔이 될 것인데, 비로소 한 아들을 얻었으니 귀국에서 축하하는 사신을 보내야 할 것이고, 日光산에 있는 德川家康의 묘후에 새로 사당을 세우는데 德川家康은 조선을 위하여 豊臣秀吉길을 섬멸하고 和好에 성실하였으니, 반드시 물건을 보내어 자취를 남겨야 할 것입니다.”

“봉지하건대, ‘조선과 일본은 도리가 이웃 나라에 속하니 왕이 참작하여 행하도록 하라’하였습니다.”<sup>20)</sup>

16) 국사편찬위원회 『비변사등록3』 1990, pp. 462~470

17) 위와 동일, p. 467

18) 위와 동일, p. 512

19) 위와 동일, p. 518

20) 쓰시마 도주 평의성이 흥희남에게 보낸 글과 兵部로부터의 회답 내용.

세종대왕기념사업회 『국역 통문관지2』 1998, pp.87,88

일본이 조선에 日光행을 요구하는 대외적인 이유는 조선의 숙적인 秀吉의 섬멸이었다. 일본은 조선에게 日光행을 요구하기에 합당한 요구가 필요했을 것이다. 이에 양국 간의 친선 도모 차원에서 그 은공의 보답으로 日光행을 요구하고 있으며 선물도 요구하고 있다.

또한 日光산에서의 의례에 대해 비교적 자세히 남기고 있는데 權現堂에서의 의례의 형식보다는 조선이 의례에 쓸 폐백 물목이나 선물들이 나열 기술<sup>21)</sup>되어 있다. 이 내용으로 보아 조선은 일본에 보낼 물목의 준비에 신중을 기하면서 자주 선택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증정교린지』<sup>22)</sup>에는, 1642년 2월 일본은 차왜를 보내어 관백의 나이가 40에 이르러 아들을 얻게 되고, 日光산에 새로 사당을 창건했다는 이유로 통신사 파견을 정식 요청했다. 이 기록에는 조선과 일본의 사전 협의 사항인 강정절목의 내용이 상세히 적혀져 있다.

『증보문헌비고』에는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일본과의 교빙을 기록하고 있으므로 짧은 기술밖에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백과사전식의 짧은 기술의 게재에도 불구하고, 「대마도주 평조흥이 그 아비 평경직을 위하여 願堂을 日光산에 짓고 차왜 평성행을 보내어 ‘宸翰과 시문을 얻어 편액을 하여서 나라 안에 과시해 빛내고 만세에 流傳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니(이하 생략)」<sup>23)</sup>(1642년) 「대군이 나이가 거의 30세에 비로소 한 아들을 얻었으니, 귀국에서도 마땅히 賀使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이하 생략)」<sup>24)</sup>(1643년)라는 등 가장 부정확한 정보가 실려 있다.

다른 사료들과 비교하자면 그 오류가 명백히 드러난다. 기본적으로 日光에 있는 원당은 將軍의 묘당으로 대마도주 선조의 묘당이 아니라는 것이다. ‘대마도주’라는 말이 대마도의 주인으로서 將軍을 가리키고 있다고 해도 將軍의 이름에 오류가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將軍의 ‘平’이 아닌 ‘源’의 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통문관지』와 『증정교린지』에서 將軍의 나이가 마흔이 다 되어 간다고 하는데 이것과도 사실이 다르고 있다. 이 사료는 당시의 기록

21) 그 기술 안에는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은 단편적인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1616년 家康 사후 日光산에 장사를 지내고 ‘東照大權現’이라 칭하였다, 1636년 和好 관계를 위하여 사신은 ‘부득이’ 갔다. 왜는 분향을 청하였다. 1642년 일본이 어필, 종 등 물건을 요청하여 수락하였으나 대장경은 불가하였다. 1655년 대마도주가 대마도에 마련한 權現堂에 분향을 요구했으나 거절했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이를 보아 조선은 일본의 요청에 자주적 선택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세종대왕기념사업회 『국역 통문관지1』 1998, pp.307,308

22) 김건서 저 『국역 증정교린지』 민족문화추진회, 1998

23) 세종대왕기념사업회 『국역 증보문헌비고 교빙고2』 1994, p.131

24) 위와 동일.

물이 아니라는 점이 가장 단점이면서 부정확하여 잘못된 역사의 사실적 오류를 범하고 있으나 그 상황의 흐름만은 비교, 파악해 볼 수는 있다.

## 2-2) 1655년에 관한 기록

1655년의 통신사의 日光행에 대한 기록은 전 회에 비해 그 양이 적다.

『변례집요』에는 효종6년 4월, 차왜가 와서 두 나라 사이의 일을 담당하는 임무를 칭하면서 서계를 지참하고 나왔다<sup>25)</sup>고 한다. 이 두 나라 사이의 일이란 즉 權現堂의 분향과 大猷院으로의 어필 하사에 관한 일로 일본은 전례와 같이 차왜를 보내어 日光행을 요청하였다.

『통문관지』에서는 家綱의 즉위하여 통신사를 보내어 치하하였다는 간단한 기술과 더불어 大猷院에서의 의례 과정을 간략하고 명료하게 기록하고 있다.

사신 이하가 공복을 갖추어 입고, 제문, 폐백, 奠物을 받들고 가서 바친 다음에, 분향하고 폐백을 올린다. 初獻하고, 독축하고, 亞獻하고, 終獻하고서, 제사를 파한다.<sup>26)</sup>

이 大猷院에서의 의례에 관한 내용은 다른 사료에서 좀처럼 찾기 힘든 것이다. 의례는 조선의 공복을 입은 정사의 시작으로, 독축관이 조선의 언어로서 제문을 읽고, 부사, 종사관이 시종일관 진행을 한다. 權現堂에서의 의례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이때는 權現堂에는 분향만 하고 大猷院에서 의례를 치렀다.

이렇게 막부 將軍의 선조 묘당에서 조선식 의례<sup>27)</sup>를 거행함으로써 조선 사신들은 국가적 우월감에 뿌듯했을 지도 모른다. 1682년에도 조선 측은 통신사를 파견하면 으레 日光을 가게 될 거라 생각하고 약기 등 물품을 준비했지만, 차왜가 와서 「관백이 아직도 省謁하지 않았으니, 다른 나라의 사신이 먼저 致奠할 수 없다」<sup>28)</sup>라는 뜻을 전하여 무산되고, 이후 日光 의례는 계속 폐지되었다. 이에 대해 『증정교린지』에서도, 관백이 日光산을 찾아보지 못했는데 타국의 사신이 먼저 가서 분향하는 것이 미안하다 하여 모든 제사를 그만 두도록 하고 다만 선물만 가져오도록 했다<sup>29)</sup>고 한다. 즉 관백보다 먼저 외국 사

25) 예조전객사 엮음 『국역 변례집요1』 민족문화추진회, 2000, p.47

26) 여기서 초헌은 정사가 행하고, 아헌은 부사가, 종헌은 종사관이 행한다.

세종대왕기념사업회 『국역 통문관지1』 1998, p.309

27) 日光산 의례에 있어 통신사는 마상제와 典樂 등을 데리고 간 것으로 보아, 제문과 분향만 한 것이 아니라 조선의 마상제와 음악도 묘당에서 피로했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28) 세종대왕기념사업회 『국역 통문관지1』 1998, p.309

신이 제사지낼 수 없으므로 日光행이 불가하다는 표면적인 이유가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그 이유에서만은 아닐 것이다.

『증보문헌비고』에는 1655년 일본의 도주, 家綱가 새로 도주가 되어 사신을 청하니 이에 응했다는 기록이 있다. 이 기록에서는 將軍을 일본의 島主로 인식하고 있으며 한 나라의 최고 권력자로서가 아닌 한낱 섬나라의 주인이라 칭하며 將軍을 격하시키고 있다. 이러한 시각에 대한 뒷받침은 1653년의 기록으로 「저들이 비록 오랑캐일지라도 이미 더불어 사귀어 和好하였으니 업신여길 수 없으므로(생략)」<sup>30)</sup>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사료를 기록한 후대의 조선은 일본에 대해 의리를 지키기 위해 예를 갖추는 뿐이며, 오랑캐 나라로서의 일본을 평가하고 있다.

조선시대의 외교사료에 나타나는 日光에 관한 내용은 모두 조선의 입장에서 조각적이고 단편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즉, 일본 막부에 의한 日光행으로의 요청이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해서 차왜의 요청만 듣고 조선이 이를 수락한 것이다. 일본은 차왜를 따로 보내어 선물을 요구할 만큼 日光 의례를 중요시하고 있다. 일본은 에도성에서의 국서봉정식만큼 국가 간의 의례로서 日光東照宮의 방문을 철저히 준비하였다.

그러나 조선은 일본의 속사정에 대한 고려보다는 단지 조선통신사의 막부 선조 묘당의 관광 차원으로 인지하고 일본과의 표면적인 和好 유지만을 염두한 나머지 日光에 대한 본질, 日光東照宮의 정치적 형성 배경, 將軍과 천황과의 관계, 중국과 분리된 일본의 정치사회적 변용 등에 대한 조사나 탐색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즉 조선은 일본의 일방적인 日光행 요청에 있어 전례로서 응하며, 日光 의례에 쓰일 물품 준비와 의례의 형식에만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 결론

17세기 중반 세 차례의 日光행이 시행되었을 당시 조선은 중국의 명청교체기라는 정세 변화 속에서 외교적 위기에 처해 있었다. 이 시기의 조선은 이러한 중국의 정치적 혼란의 영향으로 북방을 경계하고 남방의 일본과 평화적 관

29) 김건서 저 『국역 증정교린지』 민족문화추진회, 1998, p.212

30) 세종대왕기념사업회 『국역 증보문헌비고 교빙고2』 1994, p.135

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다행히도 조선은 1598년 임진왜란 이후 일본 측의 국교 회복 선제의에 응하여, 전후처리를 위한 회담검쇄환사를 일본에 파견하여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에 힘을 기울였으며 일본과의 평화 유지를 위해 교류를 지속시켜 나갔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감안하여 당시 조선 측의 외교기록을 살펴보면 日光과 東照宮에 대한 조선의 인식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통신사의 日光행은 자연을 음미하는 관광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둘째, 선조의 묘당으로서 대대의 將軍 효성을 칭송한다. 셋째, 日光 의례는 정례화된 것이 아닌 특별 이벤트이다.

조선은 1616년 후금의 대두와 1636년 청 건국의 과정 사이에서 실제로 1627년 정유호란, 1636년 병자호란의 두 차례의 커다란 외침을 경험하였다. 따라서 조선은 조선통신사가 日光을 간다는 자체에 큰 무리수를 두면서 거절하기에 어려운 상황이었다. 일본과의 사이에서도 임진왜란이라는 전쟁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국가간 관계 정황상 통신사의 日光행을 우호적 관계 유지를 위한 차원에서 단순히 인식하고 추진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조선측의 일본에 대한 태도는 日光東照宮 의례에 임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으로 표출되어 나타난다.

첫째, 청을 견제하고 무엇보다도 조선과 일본의 양국 관계의 和好를 우선시한다. 둘째, 일본의 선물 요청에 선별적으로 응하며 체면을 세운다. 세번째, 전례에 따라 응한다. 네번째, 일본은 이웃 나라로 의리를 지켜 예를 갖춘다. 다섯째, 조선의 국가적 우월감을 느끼며 자부심을 가진다. 여섯째, 일본측의 日光과 日光東照宮의 형성 배경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일곱째, 일본의 17세기 중반의 사회, 정치 변용에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는 한계성을 지닌다.

곧 조선은 日光과 日光東照宮에 관한 본질적 관심이 없었다. 조선측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1636년 첫 日光산 유람 때에는 왜 日光산을 가야 하는가 통신사의 고민한 흔적과 부정적인 시각이 조선 외교사료속에 드러나고 있으나, 이후에는 변화의 동아시아의 국제적 상황 속에서 조선통신사는 에도성에서의 국서봉정식에서 회답 서한을 받고, 조선과 일본의 평화를 유지하는데 그 목적을 지향하면서 양국의 和好와 평화 유지의 연장선상에서 日光東照宮을 염두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일본이 어떠한 의도로 日光산으로 조선을 초대하였는가에 대한 고민 없는 이러한 일방적인 일본에 대한 조선의 시각과 태도는 결국 조선의 외교적인 편의적 발상과 더불어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양국이 서로 교감할 수 없는 평행선과 같은 관계를 낳게 된다. 이로써 조선은 將軍

에 의한 통신사의 日光 초대 의도나 그에 따른 일본 측의 기대효과를 파악할 수도 없었으며, 17세기의 일본의 참모습을 객관화하여 바라보기에 한계성을 드러내고 있다.

### 【参考文献】

- 김건서 저 『국역 증정교린지』 민족문화추진회, 1998  
국사편찬위원회 『비변사등록3』 1990  
국사편찬위원회 「인조실록」 『조선왕조실록』 35권, 탐구당, 1981  
남용익 「부상록」 상, 하 『국역 해행총재5』 민족문화추진회, 1982  
세종대왕기념사업회 『국역 증보문헌비고 교빙고2』 1994  
세종대왕기념사업회 『국역 통문관지』 1,2, 1998  
예조전객사 엮음 『국역 변례집요1』 민족문화추진회, 2000  
임광 「병자일본일기」 『국역 해행총재3』 민족문화추진회, 1982  
조경 「동사록」 『국역 해행총재5』 민족문화추진회, 1982  
한국역사연구회 『조선중기 정치와 정책:인조~현종시기』 아카넷, 2003  
菅原信海 「南光坊天海大僧正と家康公」 『日光山輪王寺』 4, 1956  
小松茂美 編 『東照宮縁起』 中央公論社, 1994  
東照宮事務所 『東照宮史』 1927

## 要 旨

17世紀半ば 3 回の日光行きが施行された当時朝鮮は、中国の明清交替期という東北アジアの情勢変化の中に巻き込まれていた。この時期の中国の影響のため、朝鮮は北方を牽制しながら南方の日本との平和的な関係を安定的に構築し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幸いにも朝鮮は 1598 年壬辰の乱の以後、日本側の国交回復のための努力に応じて戦後解決のための回答兼刷還使を日本へ派遣し、日本との関係の正常化に力を入れながらも友好関係の維持のために外交交流を持続させていった。

このような時代的な状況を念頭して、当時朝鮮側の外交記録物を探ってみれば日光と東照宮に対する朝鮮の認識を次のようにまとめられる。

一、通信使の日光行きは自然景観を感想するなど観光としての意味を持つ。二、日光東照宮は先祖の廟堂で、代々の将軍の孝誠を褒め称える。三、日光儀礼は定例化されていることではなく特別なイベントである。

この認識を基礎に朝鮮側の対日態度は日光東照宮の儀礼にあたって次のような立場に現れる。

一、清を警戒し、何よりも朝鮮と日本との和好を優先する。二、日本側の物品要請に選別的に応じながらも体面を守る。三、儀礼は前例につれて行く。四、日本は朝鮮の隣国との義理を守り、礼儀ただしくする。五、朝鮮の国家的優越を感じながら自負心を持つ。六、日本での日光と日光東照宮の形成背景は考えてない。七、17世紀半ばの日本の社会政治の変容に関心を傾けることができない限界性を持つ。つまり朝鮮は日本においての日光と東照宮のことに興味がなかった。通信使の派遣は江戸城でのセレモニーだけを重視し、両国の友好を維持することにその目的がある。ただその延長線上に日光東照宮を考えている。

キーワード：日光、日光東照宮、朝鮮通信使、朝日外交、日光儀礼、朝鮮外交史料

투 고 : 2007.11.30

1차 심사 : 2007.12.08

2차 심사 : 2007.12.29

住 所 : (441-450)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412-7번지

電 話 : 031-291-6774 / 018-250-6774

e-mail : hyejin0204@hanmail.net